

오늘 '첫 수능 모평'... "결과 토대로 수시전략 세워야"

2019 대입전략

준비정도 진단, 문항·유형 적응
자신의 대략적 위치 파악 기회로
채점결과 부족한 유형 보강해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가 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5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0개 지정학원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6월 모평은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이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는 모의고사 중 하나다. 특히 오는 11월 15일에 시행될 2019학년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꼽힌다.

◆ 지원자 전년 대비 4585명 증가

6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59만2374명이다. 재학생은 51만6411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7만5963명이다. 지난해 대비 지원자 수는 4585명(재학생 4497명, 졸업생 등 88명) 증가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영역(1교시)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실제 수능과 똑같이 치러진다. 교육부는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학생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제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모평은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수능과 동일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수능 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하는 기회가 된다. 평가원은 이번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올해 수능 시험에도 반영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만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해야 한다. EBS 수능 연계교재와 연계 비율을 포함한 이번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 문답지는 각 시험 종료 직후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채점 이후 취약점 보완해야

이번 모평은 올해 대입에서 경쟁하는 재학생은 물론 재수생이 참여하는 첫 시험인 만큼 전체 수험생 중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채점 결과 자신의 취약 영역과 유형을 파악해 공부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특히 수능 성적은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최저학력기준과 정시모집에서 대학별

반영 영역이 다르므로,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시모집에서 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만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1과목에 집중하는게 효율적이다.

서강대, 서울립대, 중앙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이 올해 수시모집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탐구영역 1과목만 반영한다.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때는 대부분 2~3개 영역만 반영하므로 2~3개 영역에 집중하는게 좋다. 실제로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가천대, 상명대, 숭실대, 인천대(교과성적우수자) 등은 인문계열은 2개 영역 등급 합 6, 자연계열은 6~7 이내를 요구한다.

논술전형에서는 동국대(인문), 서강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은 3개 영역 등급 합 6~7 수준을 적용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경희대, 한국외대 등은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로 비교적 높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중위권 수험생이 수능 성적을 조금만 끌어

올린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특히 중위권 수험생의 경우 모든 영역의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을 우선 순위를 두고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인문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6,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6~7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시험 채점 결과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문제 유형을 찾는게 필요하다. 시험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집중했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 보강해야 한다. 예컨대 꾸준히 준비해 온 국어 영역 고전시가 부분에서 틀렸다면 이에 대한 그 동안의 학습 상황을 다시 점검하는게 필요하다.

커넥츠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자신이 공부했던 특정 영역이나 과목별 세부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대비해 향후 성적 향상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한 번 틀린 문항은 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개념 이해부터 재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고려대 지상3층 규모 '한국어교육관' 준공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는 한국어 교육의 새 보급자리가 될 한국어교육관이 지난 5일 준공됐고 6일 밝혔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44.23㎡(1586.38평) 규모로, 45개의 어학 강의실을 갖췄다. 강의실은 전문 어학강의는 물론 학습토론, 그룹스터디 등에 최적화됐고 동아리실과 대형강당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와 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도록 옥상 정원도 조성됐다. 특히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최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고려대 한국어교육관이 지난 5일 준공됐다.

/고려대학교

한 활용했고 태양광 설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절약형 건물로 설계됐다. 또 필요시 2개 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받는다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8 창업보육센터(BI)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을 통해 보육환경과 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사업 선정에 따라 삼육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8800만원을 지원받고, 대학 대응자금 8600만원 등 총 1억7400만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에 나선다.

삼육대는 냉난방시설시스템을 교체하

고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등 실전창업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창업보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광현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역량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기존 창업지원 시설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육대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개소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수기업 창출과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한용수 기자

숭실대 제3회 형남음악제 개최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7일 오후 5시 30분 교내 형남홀에서 제3회 형남음악제를 개최한다.

고 김형남 이사장(1905~1978)은 평양 숭실대학 동문이자 서울에 숭실대를 다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재건 숭실대학

제2대 재단이사장이자 숭실대 초대 총장, 제8대 재단이사장을 역임했다.

황준성 총장은 "초대 총장과 이사장으로 봉직하신 고 김형남 박사님을 추모하고 그 분의 숭고한 뜻과 빛나는 업적을 다시금 되새기는 감사와 추모의 음악제를 마련했다"며 "사랑하는 후손과 후학들 모두 함께 추모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분석 취업난 지속·경력선호사상 영향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취업 무경험 실업자 수가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사람인이 통계청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 취업무경험 실업자 수'는 6만3000명(전문대졸 1만5000명, 대학교졸 4만8000명)으로 2013년 1분기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다.

취업 경험이 없는 대졸이상 실업자는 2013년 1분기 2만5000명, 2014년 1분기 3만5000명, 2015년 1분기 4만5000명, 2016년 1분기 5만5천명으로 매년 1만명씩 증가했고, 2017년 1분기 6만명, 올해 1분기 6만3000명으로 증가폭은 감소했으나,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2%나 증가해 지난 5년간 취업난 지속과 경력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

한세상사 임금동 대표 동국대에 8000만원 기부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는 한세상사 임금동 대표이사(오른쪽)가 대학발전기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동국대는 기부금을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동국대 경영학과(81학번)를 졸업한 임 대표는 지난 2014년에도 2000만원을 기부해 총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학교에 전달하게 됐다.

임 대표는 기부에 앞서 "지난달 로터스관 기공식에 참석하면서 로터스관 건립



지난달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8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분기 대졸이상 취업무경험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대졸은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대학교졸 이상은 4% 증가했다.

이들을 포함해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 수는 총 10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가 8만9000명(85.6%)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15-19세'(1만 3000명), '20-29세'(8만 1000명), '30-39세'(8000명), '40-49세'(1000명), '50-59세'(300명), '60세 이상'(1000명)이었다.

올해 1분기 2030세대 전체 실업자 수는 59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였다. 2030세대 실업자 5명 중 1명은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분기 30대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8000명을 기록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면서 30대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용수 기자



(주)한세상사 임금동 대표(오른쪽)가 지난 5일 발전기금 8000만원을 기부하고 한태식 동국대 총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업이 모교 발전과 도약에 기반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됐다"며 "건립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다른 동문들의 기부

지를 북돋는데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